一九六九年의 經濟展望

高率投資와 高度成長政策의 問題點

中央日報 論說委員 李 圭 東

69년의 韓國經濟가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쉽사리 알기는 어렵다. 역시 가장 많은 資料와 人員을 가지고 69년의 經濟動向을 占칠 수 있는 곳은 政府와 그 周邊機關이다.

오늘날 經濟가 多樣化되고 量的으로 擴大됨에 따라서 經濟分析이나 豫測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는 실정이며 때문에 어떤 個人的인 判斷이 成立되기 어려워져 가고 있다. 美國에서도 차츰 經濟學者들 보다는 大統領經濟諮問室의 豫測과 情勢判斷이 優位에 있어 經濟學者들의 地位가 相對的으로 弱化되고 있다는 所聞이 들릴 程度다. 現代의 經濟는 情報와 콤푸터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迅速 正確하게 把握할 수 있는 것이므로 資料에 接近되어 있고 計算裝置를 保有한 사람이 有力해지는 것도 自明한 이치라 할 것이다.

더우기 우리의 경우 制約條件은 더욱 많다. 統計가 극히 制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提供되는 統計조차도 時間的으로 遲滯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選別되어 提供된다. 따라서 遲滯되거나 選別된 資料밖에 利用할 수 없는 一般人으로서 經濟를 判斷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에서 1969년의 韓國經濟가 어떻게 될 것이며 시멘트業界가 어떤 變化를 겪게될 것인지 筆者서로 自信있는 이야기를 할 立場은 아니다.

英國의 「R. 해롣」이나 美國의 「P. 사뮤엘슨」처럼 自己는 Generalist 라고 自負할 수 있다면 計算裝置와 人員 그리고 資料없이도 몇가지 徵候를 가지고 經濟를 豫測할 수 있겠지만 筆者는 그렇게 Generalist로 自處할 수도 없다.

어떻던 69년의 經濟를 筆者가 展望한다면 Generalist 的인 「제스쳐」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에 Generalist 가 된 氣分으로 筆者나름의 占을 쳐보는수 밖에 없을 것 같다.

◇ ◇ ◇

흔히 經濟는 非可逆的인 變化過程으로 把握된다. 經濟는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變化의 過程이라는 것이다. 變化의 過程을 제대로 알려면 오늘의 이 時點이 形成된 過程을 알고 그속에 內包된 化石을 찾아내야 한다. 1968년까지 걸어온 韓國經濟가 內包한 化石은 무엇인가? 그 化石이 將來過程에 미칠 影響은 무엇인가 하는 點이 우선 밝혀져야 하겠으며 그러한 化石에

政府는 어떻게 對應하겠는가로 豫測되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筆者는 우선 政府의 政策부터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政府는 69년의 經濟政策基調를『安定基調 위의 成長과 體質改善』에 두고 있다. 物價上昇率 6% 成長率 11.7%를 達成하면서 經濟의 體質을 改善한다는 것이다. 經濟의 體質改善을 위해서 政府는

(1) 獨寡占價格을 規制하여 消費者를 保護하고
(2) 輸入原資材의 國產化를 促進시키며
(3) 適正賃金體制를 確立하고
(4) 國際競爭力을 强化시킨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政策은 쉽게 이야기하면 企業의 價格引上을 行政的 法律的으로 統制할 것이며, 賃金引上을 統制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賃金과 物價를 强力히 統制하는 한편 輸入原資材의 國產代替를 推進함으로써 輸入依存度를 낮추고 國際競爭力을 높여 輸出을 促進시킨다는 論理가 된다.

이런 論理에 內在된 政策的意圖는 결국 國際收支逆調幅의 擴大와 物價上昇 壓力이란 矛盾의 緩和가 政府의 當面課題임을 默示的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政府가 내놓은 政策은 高度成長, 高率投資政策의 後退없는 國際收支改善과 物價安定이므로 우리經濟가 內包한 化石내지 矛盾이 그런 政策目標와 符合할 것인지 아니면 相衝될 것인지는 別個의 問題라 할 것이다.

따라서 高度成長과 그에 따른 矛盾의 關係에 대한 認識의 깊이에 따라서 政府가 提示한 政策의 妥當性에 대한 判斷은 갈릴 것이라고 생각 된다.

오늘날 高度成長政策에 대해서는 크게 둘로 갈라진 意見이 提示되고 있다. 高度成長은 계속 可能하며 또 推進해야 한다는 것이 政府의 立場이며, 그것은 矛盾의 累積에 따른 뼈아픈 後退를 不可避하게 自招하기 때문에 일단 後退하고 整理한 다음에 安定的成長을 推進하자는 意見이 일부에서 提示되고 있다. 그러나 後者는 어디까지나 小數意見이며 政府의 所信에 變함이 없는 限 高度成長政策이 앞으로도 當分間持續 될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러한 政策推進이 하나의 與件으로 주어질때 韓國經濟는 어떤 矛盾을 顯著히 露出시킬 것인가 하는 點이 69년의 經濟를 展望하는 筆者의 出發點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 ◇

우선 11.7%의 成長率을 目標로 하고 있다는 것은 高率投資를 繼續한다는 뜻이다. 政府側에서는 69년도의 總投資規模를 4,433억원으로 잡고 있으며 이는 68년의 3,661억원 보다 21.1%나 增加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投資規模를 늘리려면 必然的으로 두가지 事實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는 國內貯蓄의 增大와 다른 하나는 輸入規模의 增大라 할 것이다.

그러나 國內貯蓄이 增大하느냐 하는 點은 政府의 意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政府는 69년의 民間貯蓄을 2,561억원으로 잡고있으며 68년보다 29.6%가 增加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이러한 民間貯蓄은 正統的인 貯蓄槪念으로 보아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67년의 兇作으로 家計및 民間非營利團體의 67년 純貯蓄은 (負)로 反轉되었으며 68년도에는 그것이 (負)에서 (正)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69년의 民間家計貯蓄도 (正)을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68년도부터 苛酷하게 引上된 甲勤稅率로 68년의 民間貯蓄은 增加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負)의 値를 增加시켰을 公算이 짙다. 더우기 物價上昇率이 近來에 없이 높은 狀況下에서 68년의 民間家計貯蓄이 늘었을 理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點으로 미루어 보아 69년의 家計純貯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民間貯蓄 2,561억원은 法人貯蓄과 資本消耗充當金에서 期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資本消耗充當比率은 資本在庫에 比例하는 것이므로 커다란 變化가 있을 수 없고 變化期待値는 法人貯蓄밖에 없다. 法人企業貯蓄의 規模로 보아 2,500억의 留保를 期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民間貯蓄分은 通貨創造에 따른 金融資產및 負債의 創造로 메워가는 결과가 된다. 即 投資計劃을 執行하려면 實物貯蓄의 뒷받침없는 金融資產의 創造가 不可避하고 따라서 物價安定線 6%를 유지하는 問題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高率投資는 輸入需要를 增加시킨다는 矛盾에 걸린다. 後進國의 輸入構造는

(1) 工場稼動을 위한 操業輸入
(2) 再投資를 위한 補塡投入輸入
(3) 新投資를 위한 投資輸入
(4) 消費財輸入으로 크게 分類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68년의 輸入規模는 13억「달러」를 上廻하고 있는데 이러한 輸入增加率은 年率 40% 線이다. 따라서 69년의 投資, 成長政策을 前提로 하는 限 69년의 輸入規模는 17억달러 水準에 이르러야 한다.

政府는 輸入增大傾向을 抑制하기 위해「마진」率引上 延拂등 短期信用抑制등 措置를 取하기로 했지만 그것은 成長政策과 矛盾되기 때문에 實行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輸入構造는 操業輸入과 投資輸入 및 補塡輸入이 大部分이기 때문에 輸入의 抑制는 곧 稼動率의 抑制 그리고 生產資源의 遊休率增大와 直結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輸入構造를 形成시킨 것은 지난날의 產業政策 때문인 것이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非可逆的인 것이다. 오늘날 國產品이 라하지만 輸入이 없어질 때 全滅하지 않을 수 있는 國產品은 많지 않다. 따라서 輸入增大→生產增大의 函數關係를 內包한 產業政策의 化石때문에 輸入抑制下의 成長은 期待하기 어려운 것임을 새삼 强調하지 않을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輸入減少→生產減少의 生產體制속에 있기 때문에 成長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國際收支의 經常赤字幅을 擴大되지 않을 수 없으며 貿易收支가 特히 惡化되는 것이다.

이러한 收支惡化를 메우는 것이 長短期借款과 援助 그리고 貿易外收支라 할 것인데 그 때문에 成長率과 對外負債가 正比例關係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高度成長政策이 繼續執行된다면 그것이 國際收支構造에 커다란 壓迫을 줄 것이며 그 壓迫은 우리의 對外負債導入能力과 輸出能力에 따라서 具體的인 露出時點을 決定할 것이다.

高率投資와 高度成長政策이 金融資產創造를 加速化시켜 物價를 不安定케 하고 한편으로 國際收支를 惡化시켜 可用外換供給에「부레이크」를 걸게되기때문에 換率과 物價의「갭」이 擴大되지 않을 수 없다는 事實로 豫測하기 어렵지 않다. 換率과 物價의「갭」은 이미 30%線에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는 것이며 이런「갭」이 存在하는 限 輸出「드라이브」政策이 어렵게 된다.

오늘날「뗨핑」輸出이 아닌 品目을 찾기 어렵게 된 것도 輸出「드라이브」政策과 換率의 矛盾때문이라 할 것이며「뗨핑」輸出에 可能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國內物價의 上昇要素를 形成시킨다. 7~8弗에 輸出되는 商品의 國內價格이 1萬원 水準이나 하는 理由가 바로「뗨핑」에 依한 輸出「드라이브」때문이다.

따라서 輸出促進은 物價問題와 적어도 韓國經濟의 경우 矛盾關係에 있는 것이다. 이런 矛盾의 擴大는 결국 換率의 修正을 不可避하게 만들 것도 豫想할 수 있다.

그러나 輸入擴大→生產增大의「메커니즘」을 形成시킨 國內經經를 보아 換率의 上昇은 곧 物價上昇이란 條件을 形成시킬 것이며 安定을 危脅한다.

또 借款導入에 따른 借款企業의 원貨 負債가 換率과「링크」되어 自動的으로 擴大되기 때문에 惹起될 金融上의 隘路問題가 쉽사리 解決되지 못할 것도 自明할 것이다.

이미 金融市場은 中樞神經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換率變動이 그에 미칠 影響은 실로 업청난 것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도 아닐 것이다. 오늘의 金融市場은 原則을 잃은지 오래되었다.

Cost가 24%정도 들은 金融資金이 혹은 16%로 혹은 12%로 그리고 혹은 24%로 貸出되는 無秩序가 惹起되고 있다. 또 平均 15%以下의 收益力밖에 없는 金融貸出을 해야하는 기관에 23%의 債券을 發行해야 되고 최고 24%의 收益力밖에 없는 機關이 金利負擔을 하는 債券을 發賣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金融動向은 正常的基準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根源的인 矛盾의 一端을 露出시킨 것에 不過하다.

이와같이 秩序를 잃은 金融情勢에서 새로운 換率「쇼크」가 주어질때 惹起될 衝擊은 豫想키 어렵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換率操作이 어려워지는 理由가 있는 것이며 換率操作이 어렵다면 輸出「드라이브」를 더 持續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高率投資 高度成長政策이 가져오는

矛盾을 行政力으로 勘當할 수 있겠는가 하는 點이 69년의 重要한 關心事라 할 것이다. 經濟現象은 經濟法則과 勢力作用의 交互作用의 결과이기 때문에 純粹한 經濟法則의 所産도 아니고 純粹한 勢力作用의 結果라고도 할수 없다.

다만 短期的으로는 勢力이 優位에 있고 長期的으로는 經濟法則이 優位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9년의 經濟動向은 勢力作用으로 눌른 時間의 "길이"에 대한 判斷과도 밀접한 關係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65년 이후의 高度成長이 副作用을 현저히 露出시키지 않고 오늘까지 支撑된 主要原因이 勢力作用에 있다고 筆者는 믿고 있다. 따라서 勢力作用이 相當히 長期間持續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臨界値를 내다 보이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臨界的狀況을 露出시킨 表面현상으로서 例示할 수 있는 事項을 든다면

(1) 換物과 物價의 「갭」擴大 (2) 輸出支援施策의 追加要素 消滅 (3) 金融上의 秩序 喪失 (4) 貯蓄動向 特히 民間家計貯蓄의 後退 (5) 物價上昇率의 提高 (6) 輸入增加率의 격화내지 國際收支選澤幅의 擴大라 할 수 있다.

이런 臨界的 狀況을 政治力으로 「카바」하지 못할 때 物價上昇, 投機行爲, 消費構造의 變質 등 豫測키 어려운 現象이 일어날 것이다.

大體로 物價上昇期에 企業은 致富를 하는 것이므로 오늘의 經濟動向으로 보아 致富의 機會가 다시 크게「클로즈업」되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筆者는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인푸레期의 致富는 平均的, 一般的인 것이 아님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 ◇ ◇

이에서 指摘한 일련의 要素를 考慮할 때 「시멘트」業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豫測해야 할 것이다.

첫째, 民間貯蓄이 負가되고 物價가 上昇할때 民間 特히 家計의 投資能力은 크게 後退한다. 이는 具體的으로 住宅建設및 修理能力의 低下로 나타낼 것이라는 點이 注目의 對象이 될 것이다. 政治情勢와 稅法등에 加하여 貯蓄力까지 後退하기 때문에 68년도의 住宅建設率이 서울의 경우 20%나 後退한 사실을 重要視해야 할 것이다.

둘째. 總投資規模는 68年比 21%나 增加하므로 "시멘트" 總需要가 增加하는 것은 必然的이다. 다만 시멘트 需要構造가 家計需要의 減退公共需要의 增加로 變質할 것이므로 「시멘트」業界와 政府間의 關係는 더욱 密接해 질 것이다.

세째. 政府는 獨寡品價格規制를 强力히 推進할 것이므로 「시멘트」業界와 政府와의 關係로 보아 價格引上은 매우 힘들것이며 引上은 政治的 흥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네째, 物價上昇과 高率의 甲勤稅累進率은 相乘作用을 해서 一般的으로 賃金引上 壓力을 加重시킬 것이며 「시멘트」業界도 例外가 아닐 것이 必要賃金의 2倍 가까이 올려야 可處分賃金이 物價와 맞먹을 것이므로 賃金壓力은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換率과 物價의 「갭」을 是正하기 위해서 換率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引上될 것이며 그때마다 借款으로 建設한 「시멘트」業界는 資金事情에 變動이 생길 것이다. 換率에 比例하는 元利金償還負擔의 增加를 메우기 위한 價格引上 壓力이 나타날 것인데 獨寡占業體인 시멘트業界가 政府規制方針에 順應하는 경우 金融惠澤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金融機關依存度는 높아질 것이며 利子負擔이 加重될 公算이 짙다 할 것이다.

여섯째, 그러나 通貨量規制를 棄拋할 수 없다면 金融依存率을 높이는데 相當한 隘路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金融支援에 隘路가 甚한 경우 資金問題는 深刻한 問題가 될 것이다.

끝으로, 財政膨脹에도 不拘하고 各種 公債發行計劃이 推進되고 있는 點으로 비루어 보아 外上工事率이 커질 것이며 때문에 시멘트業界의 資金循環도 惡化되기 쉬울 것이란 點도 注目해야할 줄로 생각된다.

◇ ◇ ◇

지금까지 筆者가 演繹한 69년의 經濟는 Professional worrior의 杞憂가 되어야 할 것이며 的中하지 못하기를 바랄 뿐이다.